

日本語의 可能表現의 比較研究

- 「見える」「見られる」「見ることができる」를 중심으로 -

李蓮雨* · 全成龍**

目 次

1. 들어가며
 2. 선행연구
 3. 可能의 意味를 나타내는 「見える」의 의미용법
 4. 「見られる」의 의미용법
 5. 「見ることができる」의 의미용법
 6. 結 論
-

1. 들어가며

현재의 일본어의 동사에 있어서 可能의 意味를 나타내는 표현에는 다음의 예문에서 보여지듯, 可能동사¹⁾(「行ける·見られる」)를 사용하는 것과 「~することができる」라는 可能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し得る」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며

- ・明日は行けると思います。
- ・混雑していてよく見られなかった。
- ・落ち着いて考えることができる。
- ・一人の犯行だとも考え得る。

이외에도 可能의 意味를 나타내는 자동사가 있는데, 동사 「見える」「聞こえる」가 여기에 포함된다.²⁾

- ・ここなら花火がよく見える。
- ・太郎 (に)は富士山が見える。

* 극동정보대학 강사 일본어학

** 청주대학교 조교수 일본어학

1) 可能동사라고 하면 「読める」「行ける」등을 가리키어, 「見られる」「起きられる」와 같은 것은 可能동사에 포함시키지 않은 견해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양 쪽 다 포함시키는 포괄적인 의미로 可能동사라는 용어를 썼음.

2) 『日本語教育事典』大修館書店 (p. 199~200), 鈴木重幸『日本語文法・形態論』(p. 291)

・太郎 (に)はたいこの音がきこえる。

그런데, 이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이 가능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만, 아래에서 보여지듯 가능의 의미를 표현하는 모든 경우에 모두 같이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가령 같이 사용된다 하더라도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 ・猫は夜でもものが{〇見える/×見られる}。
- ・電車に間に合えば、9時のドラマが {×見える/〇見られる}。
- ・東京タワーに登れば、富士山が {〇見える/〇見られる}。
- ・モナリザはルーブル美術館へ行けば、{〇見られる (見ることができる) / ×見える}

그렇다면 이들의 차이는 무엇인지 「見える」 「見られる」 「見ることができる」 를 중심으로 작품 속에 실제로 쓰여진 예문(용례)을 통하여 그 특징(의미·용법)의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밝히고 저 하는데, 여기에 「~し得る,~しかねる」 등은 이번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2. 선행연구

이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대표적인 선행연구를 간단하게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久野 暉 「「レル・ラレル」と「デキル」」 (『新日本文法研究』所収. 1983)

- a. コノ酒ハドウモ飲メナイ。
- b. *コノ酒ハドウモ飲ムコトガデキナイ。

의 예를 들면서, 동사의 가능형 「レル・ラレル」은 주어의 내적능력을 나타내며, 「デキル」은 외적 조건에 유래하는 능력을 낸다.

2.2 奥田靖雄 「現実.可能.必然(上)」 (『ことばの科学1』所収.1986)

「見ることができる」라는 가능표현의 문장을 능력가능과 조건가능으로 크게 두 가지 나누었으며, 「見ることができる」라는 가능표현이 「見ることができない」라는 부정이 될 때는 [불가능]의 의미를, 「見ることができた」라는 과거형으로 될 때는 [목적·의도하는 동작 상태의 실현]의 의미를, 「見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라는 과거부정이 될 때는 [비실현]의 의미를 나타낸다. 또, 일본어에는 가능동사와 「見ることができる」라는 가능표현의 두 형태가 가능을 나타내고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거의 같다고 하면서 차이가 있다면 가능동사는 회화에서, 「見ることができる」라는 가능표현은 과학논문·평론·논설에서 많이 사용되어 진다.

2.3 森田良行 「富士山が見える」か「富士山が見られる」か (『日本語の類 意

表現』所収.1988)

「見える」는 自發적인 것에 반해, 「見られる」는 作為的이다.

2.4 李金蓮 「「見える」「見られる」「見ることができる」について」

(『世界の日本語教育』所収.1994[第4号])

가능을 능력가능과 상황가능의 두 가지로 나누었으며, 「見られる」「見ることができる」는 동작이 의지적인 것에 반해 「見える」는 무의지적이며, 「見られる」와 「見ることができる」는 거의 같지만, 서로 바꾸어 쓰지 못할 때도 있으며, 바꾸어 쓴다 할지라도 의미(뉘앙스)의 변화가 일어난다.

2.5 山内博之.清水孝司 「「～が見える」「～が見られる」」(『日本文化學報』제10집所収. 한국일본문화학회)

동사 「見える」와 「見られる」를 비교 분석함에 있어 항목으로서는 상황가능과 능력가능의 두 가지로 나누었지만, 논을 전개해 나가면서 심정가능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심정가능이란 「觀賞する」와 같은 의미를 可能文이 지닐 때 나타나며, 「見られる」에서만 보이며 「見える」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3. 可能的의 意味를 나타내는 「見える」의 의미용법

3.1 能力可能的의 경우

能力可能이란, 다음 예문에서도 보여지듯 「ある動作・状態を実現する能力がものに備わっている」(奥田1986)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경우를 말하는데, 多義語 「見える」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서 쓰일 때의 문장의 형태가 「山が見える」에서 보여지듯, 문장의 구조를 「Yが見える」(Y; 대상어)라고 한다면 「見える」가 能力可能的의 의미를 나타낼 때의 일반적인 문장의 형태는 「X(に)は Yが 見える」(X; 인지하는 감각의 주체) 라는 문장의 구조로 일반화할 수 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X(に)は Yが 見える」(X; 인지하는 감각의 주체일 경우) 라는 문장 구조속에 「見える」라는 동사가 쓰일 때, 「見える」는 능력가능으로서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³⁾ 이것은 寺村秀夫氏가 논하고 있는 가능태 (「彼ハ中国語ガ話セル」「ワタシニハ、ドウシテモノコトガ信ジラレナイ」)의 기본적인 형태와 같은 문장 구조임을 알 수 있으며,⁴⁾ 森田良行氏는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⁵⁾

「……は……が見える」という文型は、話し手の判断を示す文型ゆえ、どうしても理屈っぽくなってしまふ。さらに、見える主体を「私は」「私には」と示すと、見えるという状態がその主体に備わった特權的なものという判断に変わってしまう。これはその主体に備わった一種の能力と見てさしつかえない。「私には星が見える」は「私には星を見る能力がある」つまり、「私には星を見ることができる」能力所有の表現となってしまふ。能力所有も可能の一種である。(以下 省略)

3) 全成龍 「多義語동사 「見える」의 意味의 존재양식에 대하여」(p. 323~333)
 4) 寺村秀夫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 I』(くろしお出版 p.255)
 5) 森田良行 「「富士山が見える」か「富士山が見られる」か」(『日本語類意表現』創拓社 p.96)

麟1: 「兄は自分の死体を見て笑うでしょうか」
「笑う。きっと笑う。犬死だと言って笑うぞ」
「中隊長殿、兄は自分の死に顔を見てほんとうに笑うでしょうか」
善次郎は同じことを繰り返した。神田大尉には、その長谷部善次郎の表情が見えるようだった。(八甲田山死の彷徨)

麟2: 倉田大尉と神田大尉が地図に見入っていたときである。
「救助隊が来たぞ」
と叫んだ者があった。隊員はその兵の指す方向を見た。
多くの隊員達の眼には、山の斜面を二列側面縦隊になって近づいて来る一隊が見えた。(八甲田山死の彷徨)

例3: 女は、その暗がりのなかで、暗がりよりもっと暗かった。女につきそわれて、寢床のほうに足をはこびながらも、なぜか彼には女がまるで見えないのだ。(砂の女)

3.2 状況可能의 경우

그런데, 「X(に)は Y가 見える」와 같은 문장 구조에서 X에 인지하는 감각의 주체가 오는 것이 아니라, X에 시간이나 장면을 나타내는 상황어가 와서, 그와 같은 상태를 일으키는 장면이나 환경에 시점을 두어 이야기 하면, 森田氏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夜は星が見える」가 되어, 주어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어떤 주어진 상황 아래서만 “사물이 자연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자발적인 현상”이 가능한 것(혹은, 불가능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여기에 대해 森田氏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⁶⁾

「夜は星が見える」とか「彼の別荘は海が見える」のように「見える」を成り立たせる状況を設定すると、そこに場面限定という話し手の判断が入り込むため、「見える!」という認識発見の喜びや驚きの躍動感が失われてしまう。(～中略～) もちろん可能表現は一般にもっと広い意味をもっており、「見える」や「聞こえる」なら、そのような能力の所有(内的条件)だけでなく、「夜は星が見える/見られる」のような、その状態成立に必要な外的条件として考えられる制約(この場合は“夜にかぎって”という時間的制約)も可能的判断を生み出す。

그러나 작품 속에서 森田氏가 이야기하고 있는 「夜は星が見える」 「彼の別荘は海が見える」와 같은 예문은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작품 속에서는 다음 예문에서 보여지듯, 일반적으로 문장속에 때(시간)을 나타내는 상황어나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상황어가 원인·이유로 작용하여 “사물이 자연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자발적인 현상”이 가능한 것(혹은, 불가능한 것)을 나타내는 것과

例4: 暗夜でなにも見えなかった。(八甲田山死の彷徨)

例5: 進藤特務曹長はブナの方に小型提灯を向けたがブナは吹雪にかくれて見えなかった。(八甲田山死の彷徨)

6) 森田良行 「「富士山が見える」か「富士山が見られる」か」(『日本語類意表現』創拓社 p. 96)

齣6; 洞穴の中は暗くて、最初のあいだは何も見えませんでしたが、やがて目がなれて見えてきました。(ビルマの豎琴)

다음 예에서 보여지듯 「Xから(は) Y가 見える」(X: 장소명사)와 같이 「から」격으로서 그 장소에 한해 “사물이 자연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자발적인 현상”이 가능한 것(혹은, 불가능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있다.

例7; 徳島大尉は地図を開いて、それに小型提灯の灯を当てて、田辺中尉と高畑少尉に言った。

「地形的に桧ノ木森付近からは青森湾が見える。従って海岸線を走る汽車の灯が見えるわけだ」(八甲田山死の彷徨)

例8; 療養所はここからは見えぬ。(聞かなかった場所)

3.3 条件可能的 경우

条件可能이란, 「条件が備わっていれば、あるいは条件が備わっている(備わっていない)ために、ある動作・状態の実現が可能(不可能)である」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다음 예문에서 보여지듯 「見える」앞에 「~と、~ば」등에 의해 나타내어지는 조건구(절)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例9; 笑うと歯ぐきが見える。(とかげ)

齣10; 「その角をまがると、小学校が見えます。~」(国語二上)

齣11; 「民さん、ここまで来れば、清水はあすこに見えます。~」(野菊の墓)

4. 「見られる」의 의미용법

4.1 能力可能의 경우

李金蓮과 森田良行가 「見られる」에는 능력가능이 없다고 한 것과는 달리 山内博之·清水孝司의 논문에서는 「見られる」가 예문 「彼は、人の手相が見られる。」에서와 같이 「理解・判断・観賞」이란 의미가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能力可能으로 사용되어진다고 하고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 예문을 현재로서는 찾지 못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도 山内博之·清水孝司의 논문 이외에는 「見られる」의 能力可能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能力可能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의 용례가 필요할 듯 하여 금후의 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4.2 状況可能의 경우

「見える」의 상황가능과 마찬가지로 「見られる」의 경우도, 주어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어떤 상황(장소) 아래에서만 시각으로서의 확인이 가능한 것(혹은, 불가능한 것)을 나타내는데, 이 때 다음 예문에서 보여지듯 일반적으로 「見える」의 상황가능과 같은 문장구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차이는 「見える」는 특정한 상황 아래에서 사물이 자발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것에 반해, 「見られる」은 話者の 의지가 있다는 점이다.

齣12; ぼくがこの街を最初に訪れたのは、一九六八年の夏が過ぎようとしてい
るごろでした。その夏、ブラハは急速に冷え込んで行きつつありまし
た。街のあちこちに戦車や、自動小銃を持ったソ連兵の姿が見られま
した。(忘れえぬ女性たち)

齣13; ホテルのバーには、映画で見覚えのある俳優や、名前だけは知っている
有名人の姿などが見られます。カウンターの椅子に腰をおろしてジント
ニックを飲んでしていると、黒い服を着た中国人ふうの女性が横こきて、笑
顔でうなずきました。(忘れえぬ女性たち)

齣14; 実は、地球上には、もう一つ、別の形をした水があるのです。それはほ
かでもない、氷の世界です。つまり氷河のことです。ヨーロッパのアル
プスやヒマラヤのような高い山の上とか、北極や南極にちかい所には、
現在も氷河が見られます。特に南極大陸は、そのほとんどすべてが厚い
氷に覆われています。(国語六上)

4.3 条件可能의 경우

「見られる」의 경우도, 「見える」와 같이 「~と, ~ば」 등에 의해 나타내어지는 조건구(질)를 수반할 때 조건가능이 된다.

齣15; 階段を降りて行くと、~中略~、黒人や、イタリア人たちの姿も見ら
れます。(忘れえぬ女性たち)

齣16; モナリザはルーブル美術館へ行けば見られる。

(『教師用日本語教育ハンドブック④ 文法Ⅱ』의 예문)

齣 17; 東京タワーに登れば、富士山が見られる。

(『初級を教える人のための日本語文法ハンドブック』의 예문)

4.4 心情可能的 경우

能力可能·狀況可能·条件可能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을 본고에서는 心情可能이라고 하는데, 이 심정가능에 대해 山内博之·清水孝司씨는 心情可能이란 「見られる」에서만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觀賞する」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고 논하고 있지만,⁷⁾ 다음의 예문에서 보여지듯, 이 경우 반드시 「觀賞する」의 의미만을 나타내지는 않는 것 같다.

齣 18; 「六年生のほこりを持つ — 歩き方にも」は、最高学年としての自覚
を呼かけ、歩き方一つにも責任を持つという姿勢が 見られます。

(国語六上)

齣 19; ブルガリアの女性は、もともと農産国家ですから、イタリアのように底
ぬけに明るい、ラテン的な気質はもちろん持ち合わせていません。しか
も、たくさんの民族の血が混じりあっていて、そのなかで、東ヨーロッパ
の中で唯一の親ソ的な国として、質素ながら近代化を進めてきた国で
すから、決して派手でなく、また、服装や化粧の面でも、流行の先端を
行くような、そういう傾向もほとんど 見られないわけです。

(忘れえぬ女性たち)

5. 「見ることができる」의 의미용법

5.1 能力可能的 경우

李金蓮씨는 「見ることができる」에 있어서의 능력가능은 나타낼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久野 瞳씨는 「することができる」는 외적 조건에 유래하는 능력을 나타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외적조건이 아닌 내적 능력으로서의 가능한 예문을 비록 성서 속이지만 찾을 수 있었다.

齣 20; 「あなたたちは、夕方には『夕焼けだから、晴れた』と言い、朝には『
朝焼けで雲が低いから、今日は嵐だ』と言う。このように空模様を見分
けることは知っているのに、時代のしるしは 見ることができないのか。」

(マタイによる福音書 16:3)

5.2 狀況可能的 경우

「見られる」의 경우와 같이 주어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어떤 상황(예 23의 경우는 시대적으로) 아래서만 시각으로서의 확인이 가능한 것(혹은, 불가능한 것)을 나타낸다.

7) 『日本文化学報』 제10권, p. 113, 山内博之·清水孝司(2001, 2)

鬮 21; 弾がとんでくる中をあちらこちらと走り回っていたから、おそらくあの山の中で死んだものと思われる。自分たち負傷兵は洞窟の中に収容されていて、外の様子は見る事ができなかったが、彼が弾に当って仆(たお)れたのを見たという者もあった。(ヒルマの 堅琴)

鬮 22; 次に、プールにしきりをつけて、かた方にだけプザーのボタンをとりつけました。そして、二頭のイルカをべつべつにいれました。お互いに声は聞こえますが、すがたを見る事ができません。(国語三上)

鬮 23; しかし、あなたがたの目は見えているから幸いだ。あなたがたの耳は聞いているから幸いだ。はっきり言っておく。多くの予言者や正しい人たちは、あなたがたが見ているのを見たかったが、見る事ができず、あなたがたが聞いているものを聞きたかったが、聞けなかったのである。(マタイによる福音書 13:17)

그런데 다음의 예문과 같이, 狀況可能인지 条件可能인지 구분이 확실하지 않은(두 경우가 공존한다고 생각해야 할) 것처럼 생각되는 것도 있다. 왜냐하면 「見る事ができなかった」의 원인을 「背が低かった」에 두느냐? 「群集に遮られて」에 두느냐? 에 따라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見る事ができなかった」의 이유를 「背が低かった」로 보면 조건가능이 되며, 「群集に遮られて」로 보면 상황가능이 되기 때문이다.

鬮 24; イエスはエリコに入り、町を通っておられた。そこにザアカイという人がいた。この人は徴税人の頭で、金持ちであった。イエスがどんな人か見ようとしたが、背が低かったので、群集に遮られて見る事ができなかった。(ルカによる福音書 19:3)

5.3 条件可能의 경우

「見る事ができる」의 경우도 「見られる」와 같이, 「~と, ~ば」 등에 의해 나타내어지는 조건구(절)을 수반할 때 조건가능이 된다.

鬮 25; イエスは答えて言われた。「はっきり言っておく。人は、新たに生まれなければ、神の国を見る事ができない。」(ヨハネによる福音書 3:3)

鬮 26; 年があけてもそれから六ヶ月もしなければ 青いものを見ることさえできません。それまでの長い長い冬の間は、ただ白い雪と、嵐の叫び声と、わたくしを不安にする不可解な音ばかりで、さすがに堅固なわたくしの意志さえ、今はほとんど挫けそうに思われてくるのでした。(天の夕顔)

5.4 心情可能의 경우

先行研究에서는 心情可能에 대해서는 「見られる」만이 언급되어져 있지만, 다음 예문에서 보여지듯이, 「見ることができる」에서도 「見られる」와 같이 心情可能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때의 「見ることができる」는, 심정적으로 「判断하다·把握하다」라는 의미를 지니는(나타내는) 것 같다.

齣27; 彼は、アジアの女性に対して、死ぬまで旺盛な好奇心を抱きつづけた人です。そして、彼の描く絵には、東洋についてのさまざまなイメージ、憧れや幻想を 見ることができます。(忘れえぬ女性たち)

齣28; 事実、山の森をむやみに切り開いて道路を造ったりしたために、大規模な自然のはかいが進んでいる例は、わが国でも各地で 見ることができる。(国語六上)

齣29; 今度は三度目で、ソフィアだけでなく、黒海の沿岸の、ヴァルナというリゾート地帯まで回ってきて、これまで知らなかったブルガリアのもうひとつの面を 見ることができました。そのブルガリアと、フィンランドと、それからポルトガルと、それぞれに何か共通したものをを感じるわけです。(忘れえぬ女性たち)

6. 結論

능력가능의 경우, 「見える」는 주로 시각에 의한 파악일 경우에서 예문이 많이 보여지고, 「見られる」에서는 예문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見ることができる」에서도 예문이 하나밖에 없어 일반론을 제시하기 어렵지만, 이 경우는 위의 예문에서 보여지듯 心情可能의 「判断(把握)」이라는 의미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둘째, 狀況可能의 경우를 살펴보면, 「見える」가 어떠한 상황 하에 놓여지기만 하면 저절로 대상이 눈에 들어오는 경우에 쓰여지고 있는 것에 비해, 「見られる」와 「見ることができる」는 보려고 하는 의지(노력)가 전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 대상을 직접 접하며 이야기하는 경우는 「見える」가 사용되며, 동작의 주체가 현장에 있고 없고와 관계없이 사용되어질 경우는 「見られる」「見ることができる」가 사용된다. 그러나 「見える」의 狀況可能의 경우 「夜は星が見える」에서 보여지듯이 동작의 주체가 현장에 있는 것과 관계없이 일반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경우에도 쓰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상을 직접 접하며 이야기하는 경우에만 쓰여진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셋째로, 조건가능의 경우, 「見える」「見られる」「見ることができる」, 세 가지 모두 조건구(절)을 동반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고 할 수 있으나, 「見える」의 경우는 조건이 갖춰지기만 하면 보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대상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고, 「見られる」「見ることができる」의 경우는 조건이 갖춰졌다고 해도 동작의 주체가 보려고 한다는 의지가 동반된다는 것이며, 「見られる」와 「見ることができる」는 그 意味·用法이 거의 비슷하지만 「見られる」에서는 그 대상이 모두 구체적인 것인 반면, 「見ることができる」에서는 齣11에서의 「神の国」와 같이 추상적인 대상도 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심정가능의 경우, 「見える」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見られる」「見ることができる」의 경우 모두 대상이 추상적인 것이라는 것과 「判断·把握」이라는 의미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현재

로서 그 차이점은 찾지 못 하였다.

KCS I

【参考文献】

- ・庵功 雄 外(2000)『初級を教える人のための日本語文法ハンドブック』スリーエー ネットワーク p.85
- ・市川 孝 外(1988)『三省堂現代国語辞典』三省堂
- ・奥田靖雄(1986)「現実・可能・必然(上)」言語学研究会編『ことばの科学1』所収・ むぎ書
房 p.181~212
- ・神田寿美子(1964)「見れる・出れる — 可能表現の動き」時枝誠記他編『国語文法 講座3
ゆれている文法』所収・明治書院)
- ・久野 暲(1983)「「レル・ラレル」と「デキル」」『新日本文法研究』所収・大修館 書店 p.149~
156
- ・国際交流基金(1982)『教師用日本語教育ハンドブック④ 文法Ⅱ』凡人社 p.42~47
- ・鈴木重幸(1972)『日本語文法・形態論』むぎ書房 p.291
- ・寺村秀夫(1982)『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Ⅰ』くろしお出版 p.255
- ・西尾 実 外(1986)『岩波国語辞典』第四版・岩波書店 p.1066
- ・日本語教育学会編『日本語教育事典』大修館書店 p.199~200
- ・森田良行(1988)「「富士山が見える」か「富士山が見られる」か」『日本語の類意
表現』所収・創拓社 p.91~98
- ・山内博之・清水孝司(2001)「「～が見える」「～が見られる」」『日本文化学報』第
10輯所収・한국일본문화학회 p.107~118
- ・李金蓮(1994)「「見える」「見られる」「見ることができる」について」『世界の 日本語教育』
1994年4号所収・国際交流基金 日本語国際センター
- ・全成竜(2002)「多義語동사「見える」의 意味의 존재양식에 대하여」『日本学報』 제 52
집所収・한국일본학회 p.323~333

【出典一覧】

- ・安部公房『砂の女』新潮社(昭和56年発行・平成8年43刷)
- ・石森延男 外『国語三上 わかば』光村図書(昭和61年発行)
- ・石森延男 外『国語六上 創造』光村図書(昭和61年発行)
- ・石森延男 外『国語五上 銀河』光村図書(昭和61年発行)
- ・伊藤左千夫『野菊の墓』新潮社(昭和60年85刷改版・平成2年94刷)
- ・五木博之『忘れえぬ女性たち』集英社(1987年・第7刷)
- ・川端康成『千羽鶴』新潮社(昭和42年27刷改版・昭和55年51刷)
- ・共同訳聖書実行委員会『聖書 新共同訳』日本聖書協会(1987, 1988)
- ・栗原一登 外『こくごニ上 たんぽぽ』光村図書(平成6年発行)
- ・栗原一登 外『国語四上 かがやき』光村図書(平成6年発行)
- ・夏目漱石『それから』新潮社(昭和23年発行 昭和60年79刷改版・平成3年9刷)
- ・高見 浩(訳者)『ラブ・アンド・ウォー』新潮社(平成9年発行)

- ・竹山道雄 『ビルマの豎琴』 新潮社 (昭和63年75刷改版・平成3年79刷)
- ・中河与一 『天の夕顔』 新潮社 (昭和41年29刷改版・平成2年69刷)
- ・新田次郎 『八甲田山死の彷徨』 新潮社 (昭和53年1月発行・2月2刷)
- ・松本清張 『聞かなかった場所』 角川書店 (昭和50年1月初版発行・10月7版)
- ・武者小路実篤 『友情』 新潮社 (昭和62年103刷改版・平成元年106刷)
- ・吉本ばなな 『とかげ』 新潮社 (平成8年発行・平成10年7刷)

K C I

【要 旨】

現代の日本語における可能(不可能)の意味を表す言い方には、可能の意味が含まれている自動詞と可能動詞、「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可能表現、さらに「～し得る」「～しかねる」など、いろいろあるが、ここでは、これらのうち、「見える」「見られる」「見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三つの言い方を、実例に基づいて比較・分析して、それぞれにおけるその可能(不可能)の意味や用法を明らかにしたのである。

キーワード: 能力可能・状況可能・条件可能・心情可能・自発・意志

투 고 : 2002. 11. 30

2차 심사 : 2002. 12. 14

3차 심사 : 2003. 1. 14

李 蓮雨

住 所 : (360-21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효성APT 102-908

電 話 : 043-212-1490

E-mail : ywlee0524@hanmail.net

全 成龍

住 所 : (360-764)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6 번지 청주대학교 일어일문학과

電 話 : 043-229-8346

E-mail : immanuel@chongju.ac.kr

K C I